

미분양 넘치는데 전세는 '별 따기'

광주·전남 전세값 상승률 평균 3.3% ... 전국 평균 웃돌아 전세난 갈수록 심화 ... 주공 소형 임대주택 입주 경쟁 치열

미분양주택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전셋집 구하기는 날로 어려워지는 등 광주·전남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올 들어 광주 광산구와 순천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전정부지로 치솟고 공급불량이 많지 않은 소형 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3.3%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2.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8%)에 비해 네 배 이상 급등했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올 들어 전셋값이 8.1%나 된 가운데 남구와 서구도 각각 2.1% 올랐다.

전남도 올해 전셋값이 3.2% 올라 지난해(1.8%) 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량 확대되는 등 전셋값이 전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처럼 전셋값이 크게 뛴 것은 중소형이나 임대주택 등 서민형 주택의 공급이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고가의 중대형주택이라는 점에서 상당수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를 선택하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전세 품귀 추세는 집값 대비 전셋값 비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현재 광주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중은 73.5%에 달한다.

이는 1억원 짜리 아파트의 전셋값이 7천350만원에 달한다는 뜻으로, 전국 평균(52.5%)은 물론, 6대 광역시 평균(61.8%)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역 세입자들이 타 시·도에 비해 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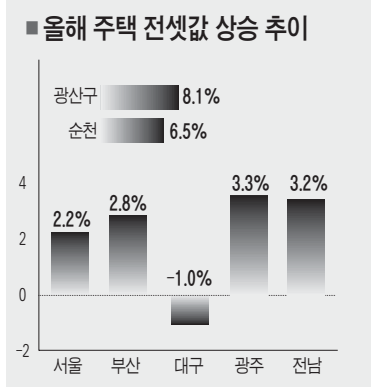
없이 높은 전셋값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또 최근에는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보다 보증금을 낀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확산돼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53.0%에 달한다. 반면 전세의 비중은 42.6%까지 떨어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높은 전셋값을 치르고도 전셋집을 찾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신혼부부 등 서민형주택 수요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전세 매물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전세 매물이 중대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



중대형 매물의 전셋값은 대부분 1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어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에 따라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광주 송화마을 국민임대주택의 추가 입주신청 결과 3.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수완지구의 국민임대주택(2천586세대)이 1.63대 1의 경쟁률로 전 경형의 접수가 마감되는 등 주공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피러스&모하비
고객과 함께하는...
추억의 7080 콘서트
기아차 내달 9일 서울 코엑스

기아자동차가 오피러스와 모하비 고객을 'OPIRUS & MOHAVE와 함께하는 추억의 7080 콘서트'에 초대한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12월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연에는 윤형주·김세환·전영록 등 80년대 최고 인기 가수들과 홍서범의 육슨80, 건아들, 블랙테트라 등 그룹사운드에 이어 소녀시대까지 시대를 품미한 스타들과 신세대 가수들이 출연한다.

기아차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와 기아차 VIP 멤버십 콜센터(1566-5854)를 통해 오피러스와 모하비 고객들을 대상으로 콘서트 참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제조업 경기 이달에 더 나빠질 듯

광주·전남 업체 BSI 56 ... 전달보다 12P 하락 금융 불안·원자재값 상승 등 생산 활동 약세

지난달 광주·전남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달에도 협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제조업체의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56으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전달(73)에 비해 17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지역 업체들의 업황이 기준치(100)의 절반 수준까지 '곤두박질'했다. BSI가 100 미만이면 업

황이 좋지 않다는 기업이 좋았다는 업체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

또 광주·전남의 업황 지수는 전국 평균(67)을 크게 밑돌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업은 지난달 최대 경영여로 사황으로 환율 급등(18.1%)과 원자재값 상승(17.7%), 불확실한 경제상황(16.5%) 등을 꼽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업황 악화가 뚜렷했다.

또 지역 기업들은 이달에도 협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단연 높았다. 지역 제조업체의 11월 업황 전망 BSI는 56으로, 전달(68)에 비해 12포인트나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광주·전남 기업들의 업황 악화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달 업황 전망에도 먹구름을 끼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떡 명장들의 솜씨 자랑
1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2008 전국 떡 명장 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떡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LPG값 큰폭 하락 전망

11월분 수입가격 t당 300달러~320달러 떨어져

11월분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월분 수입가격 등을 반영해 LPG수입업체들이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12월 LPG공급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물경제로 옮겨 불고 있는 경기침체의 한파에 따른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LPG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사는 이달 인도하는 국제LPG가격(기간계약가격)을 프로판가스는 t당 490달러, 부탄가스는 t당 490달러로 각각 결정해 국내 LPG수입업체들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에 견줘 프로판가스는 t당 300달러, 부탄가스는 t당 320달러나 떨어진 것이다.

특히 이같은 가격대는 2005년 10월

보다 낮은 수준으로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의 하락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율 등 국내 LPG공급 가격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제외할 경우 큰 폭으로 떨어진 국제LPG가격으로 인해 12월 국내LPG공급가격을 kg당 310원 이상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LPG공급가격은 사우디 아람코사에서 매달 말에 다음 달 적용될 국제LPG가격을 통보하면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LPG를 수입, 공급하는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가 결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앞서 LPG업계는 환율폭등 등으로 인해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달에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LPG가격을 동결했다.

연합뉴스

주공 임대아파트

1천여 가구 공급 광주 남구 방림동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고재택)는 2일 광주시 남구 방림지구에 5년 공공임대아파트 1천53가구를 공급한다.

면적별로는 51㎡형(154가구), 59㎡형(178가구), 75㎡형(346가구), 84㎡형(375가구) 등이 공급되며, 2009년 9월 입주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 거주 무주택 가구주로, 입주신청은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다.

면적별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51㎡형(3천만원, 18만3천330원) ▲59㎡형(3천900만원, 27만5천원) ▲75㎡형(5천만원, 30만원) ▲84㎡형(5천500만원, 36만6천670원) 등이다.

전체 물량 가운데 30%는 청약저축 6회 이상 가입자로 광주시에 거주하며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수출 '원더풀' ... 올 228억달러 최대치

전년대비 43% 증가

국내의 극심한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올 수출액이 22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월~9월 말 도내 수출액은 모두 22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수출증가율

22.2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남 지역의 과거 연간 수출액 규모 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대기업 수출은 183억달러로 총 수출의 80.5%를 차지했으며, 국가별 수출비중은 중국이 31.8%로 가장 높았고 일본(7.7%), 홍콩(6.8%), 미국(4.9%) 등의 순이다.

산업별로는 공산품이 227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은 4천400만달

러, 수산물 5천400만달러 등이다.

총 수출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은 석유화학제품과 기계선박류, 전기전자제품이 주를 이루며 수출증가율도 43.1%를 기록해 증가세를 주도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한 농산물 수출도 중국산 식품의 밸리인 파동으로 인해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3·4분기부터는

수출액이 늘어났다.

전남도는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인상과 조선분야 신규시장 개척, 환율급변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 등으로 인해 올 도내 수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수출자금의 위험 회피를 위한 환변동보험 가입, 선물환 관리를 위한 무역실무교육 등을 강화해 도내 수출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기본 ₩19,500
경쟁이 웃는 날까지 무·육 계속됩니다
서울관광캐바레니이트
(대안동 롯데백화점 지하/예약:062-226-9334)

남성 헤어 가능장학 大山프리모닝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대신프리모닝네기발
\$85·100 '사람세상' 방문
기발
초슬림!!
이머가장 빠른 시술시간
귀하의 몸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행복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062-273-2868, 073-8822
프롬다수 제 011-807-5330